

2014 크리스마스 칸타타

온 가족이 즐기는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설레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채운 크리스마스 칸타타



따뜻한 연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명작,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오는 11월 29일 공연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등 25일간 전국 19개 도시 21개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수준 높은 음악으로 재연한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에 담긴 여러 의미를 각 막마다 주제에 적합한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 등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여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짜임새 있게 구성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한층 세련된 작품성으로 14년간 공연되고 있으며, 2011년 세종문화회관 명품공연으로 선정되는 등 12월의 인기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휘는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인 보리스 아발란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박은숙 그라시아스합창 단장이 맡는다.



1막은 예수의 탄생

2막은 상실된 가족간 사랑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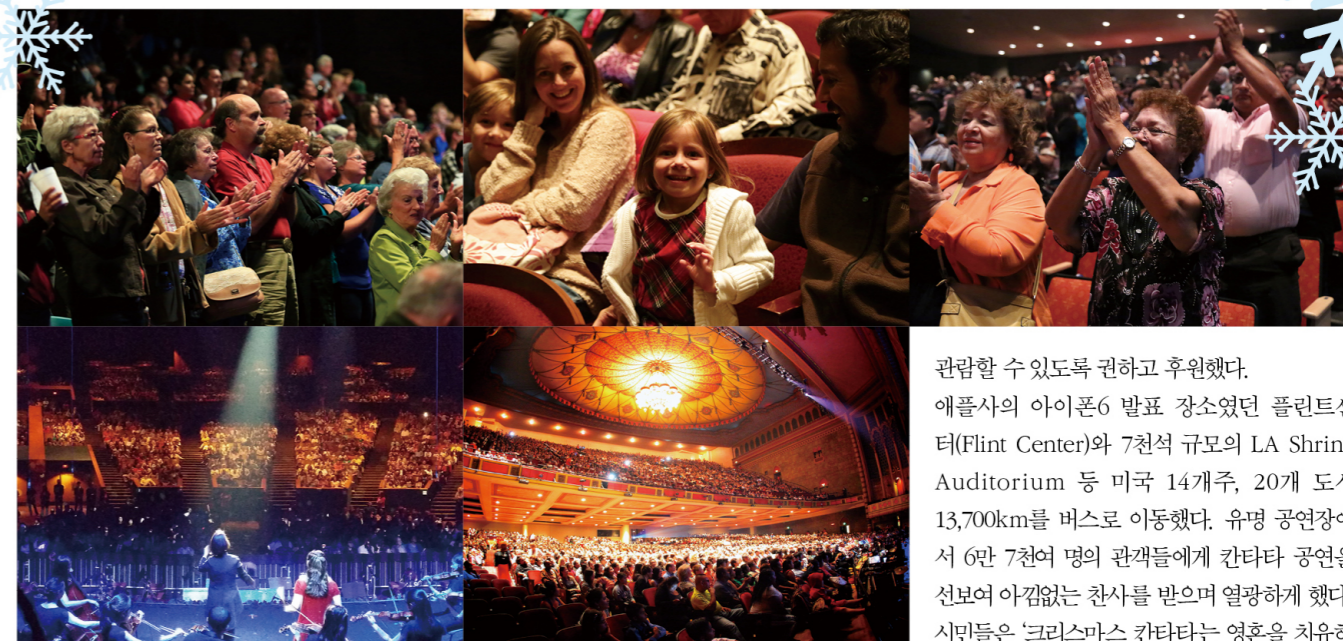
3막은 클래식 합창과 캐롤 공연

1막은 오페라로 '초라한 마굿간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주제로 Herod the Great, O Holy Night 등 7곡 등을 선보이며 예수의 탄생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 밝고 경쾌한 뮤지컬 형식으로 꾸며질 2막에서는 '따

스하고 행복한 가족뮤지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테마로 가슴 따뜻한 스토리와 함께 징글 벨(Jingle Bells)을 포함한 다양한 캐롤송 등이 준비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박수치며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막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음색을 자

랑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무대로 'For Unto Us a Child is Born'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allelujah'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창으로 연주된다.

미국인들이 기립박수로 환호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미국 14개주 20개 도시, 6만 7천여 명의 미국인들이 기립박수로 환호하다!



관람할 수 있도록 권하고 후원했다. 애플사의 아이폰6 발표 장소였던 플린트센터(Flint Center)와 7천석 규모의 LA Shrine Auditorium 등 미국 14개주, 20개 도시 13,700km를 버스로 이동했다. 유명 공연장에서 6만 7천여 명의 관객들에게 칸타타 공연을 선보여 아낌없는 찬사를 받으며 열광하게 했다.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기꺼이 'It's Best!'라고 환호했다. 놀크로스 시의 Bucky Johnson 시장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나타낸 연기와 노래, 처음 들어보는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었다고 극찬했다.

"제가 살면서 훌륭한 크리스마스공연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중 오늘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최고였습니다." (Armando Ramirez / 미국 올랜도)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최고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합창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Leonard Scarcella / 미국 휴스턴)

지난 10월 20일간 미국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은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공연을 했다. 미국은 브로드웨이를 비롯하여 이미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공연들이 차고도 넘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흥미롭고 탄탄한 구성력, 배우들의 연기와 보컬이 완벽한 공연들이 많다. 초호화 캐스팅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관객의 마음속 중심축을 감동으로 움직이고, 삶의 변화를 주는 공연은 많지 않다.

키는 환상적인 크리스마스의 본고장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잊혀져가고 있다. 미국인들이 그라시아스의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아주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2만 7천여 명의 미국인들의 환호에 이어 올해도 20개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매년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 준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에 대해 많은 도시에서 공연 일을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날'로 공식 선정하고 축하메시지와 함께 감사장을 통해 환영했고, 시민들이 공연을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에서 시작되었듯, 미국은 우리에게 향수를 불러일으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우리들의 음악으로 세상이 따뜻해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노래를 부를 겁니다.”



미국인들이 그라시아스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매년 선진국 및 아프리카 오지, 중남미, 아시아 등 30여 개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자선공연 및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장이나 마을 공터,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호주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 앞에서 그들의 언어로 노래하며 그들의 마음과 만나는 공연을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다.

“음악은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그 변화의 순간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바로 그 변화야말로 음악의 가장 놀라운 힘입니다.”
(보리스 아발란 / 그라시아스 합창단 수석 지휘자)

“저는 그 당시 급박하게 전해지는 인증 학살 소식을 듣고 피신했지만 제 부모님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 이런 비참한 기억은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그라시아스합창단이 르완다에 와서 르완다어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자들이나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등의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기쁘고,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내 마음은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nry(헨리)/23세 르완다 청년)

마음에 절망과 죽음이 온 자들이 음악을 들으며 전혀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음악으로 변화되는 힘을 심어주고 있다.



Conductor 보리스 아발란 Boris Abalyan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그라시아스합창단 수석 지휘자)

러시아의 공훈예술가로 인정 받은 대표적인 합창 지휘자로, 독일 Marktobendorf 국제 합창콩쿠르 최우수 지휘자상을 수상하였다. 섬세하고 정확한 소리를 만들며, 합창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2008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을 처음 지휘한 이래 그라시아스를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주요단원소개



Conductor 박은숙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아시아인 최초로 수석 졸업하였으며, 단아하고 섬세한 합창음악, 풍부한 감성과 깔끔한 소리를 추구한다. 그라시아스합창단원 개인의 자질을 헌신적인 열정으로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운드의 합창단으로 탄생시킨 '생각하는 아티스트'이다.



또한 200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과 협약 이후, 매년 음악원의 교수진들과 함께 국내외 공연들을 개최해 왔으며, 인천(중학교)과 대전(고등학교)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와 도미니카 산티아고 시와 MOU를 체결하고 음악학교를 개교했고, 뉴욕 마하나임 그라시아스 음악원을 설립하여 진정한 마인드를 갖춘 음악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의 음악은 밝고 깨끗한 인토네이션(intonation)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러나는 소리로 유럽 음악가들 사이에서 정평이 났다. 이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연습과 실전 무대 경험을 통해, 2014년 스위스 몽트리 국제합창제 혼성부문 1등상, 관객상을 수상했고, 2014 이탈리아 리바 델 가르다 국제합창대회 대상, 2010 부산 국제합창제 대상, 2009 제주 국제합창제 대상을 수상했다.



“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첫째, 소리가 좋습니다. 굉장히 밝고 깨끗한 인토네이션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음악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기뻐합니다.”
미하일 간트바르크 Mikhail Gantvarg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총장)



“저는 국제합창협회의 회장입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며 세계 최고의 합창단의 노래를 듣는데 그라시아스합창단도 그 중에 속합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의 음악은 매우 놀랍습니다. 아시아의 합창단을 많이 봐왔지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인상 깊은 합창단입니다.”
마이클 앤더슨 Michael Anderson (IFCM(국제합창협회)회장, UIC음악교수 / 시카고)



“훌륭한 지휘자와 전문적인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구성된 그라시아스의 음악을 듣다 보면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이 전달되어 온기 가득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며 운택하게 할 것입니다.”
드미트리 니콜라이비치 차사비친 Dmitry Nikolaevich Chasovitin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전 총장)



“그라시아스의 음악은 한국 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음악에 새로운 트렌드를 부여하려고 기대합니다. 이들의 연주는 고도의 전문적인 수준이며, 합창단, 솔리스트들은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악을 합니다.”
이고르 레베젠프 Igor Lebedev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전 부총장)

올해 12월에도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한국 관객들 앞에 선다.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게 될 이번 전국 순회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웃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에 사용된다. 세종문화예술회관(12월 4일, 5일), 광주문화예술회관(9일), 서울 여의도KBS홀(12일), 부산 BEXCO 오디토리움(15,16일) 등에서 공연되며, 이외에 전국 주요 도시별 자세한 공연 일정은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칸타타 홈페이지(<http://www.graciascantata.com>)를 참고 하면 된다.